

광주보호관찰소

○ 매체 : 남도일보(2026. 9. 9.)

○ 제목 : 쓰레기 더미에 갇힌 79세 노인... 추석 앞두고 집 안이 달라졌다.

쓰레기 더미에 갇힌 79세 노인...추석 앞두고 집 안이 달라졌다

광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 8명 주거환경 개선
저장강박·치매·우울증으로 수년간 폐기물 쌓여
지역 봉사회 요청으로 '사회봉사 국민공모제' 지원
악취·해충 문제 해소...쾌적한 명절 환경 마련



추석을 앞두고 광주의 한 79세 노인이 수년간 쓰레기와 생활용품으로 가득 찬 집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되찾았다. 저장강박증과 치매, 우울증으로 집 안을 정리하기 어려웠던 노인을 위해 광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들이 직접 폐기물을 치우며 따뜻한 명절을 위한 손길을 보냈다.

광주보호관찰소는 9일 저장강박증과 치매 등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김 모씨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투입했다.

김씨는 수년 동안 집 안에 이불과 집기류, 생활쓰레기 등을 쌓아둔 채 생활해왔다. 집 안에 방치된 물건이 늘면서 악취와 해충 문제까지 발생했지만 정신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정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.

도움의 계기가 된 것은 지역 봉사단체인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회의 요청이었다. 봉사회는 집 안에 쌓인 폐기물 양이 워낙 많아 자체 인력만으로는 정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의 '사회봉사 국민공모제'를 통해 지원을 요청했다.

이에 광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현장에 배치했다. 사회봉사자들은 집 안 곳곳에 쌓여 있던 이불과 집기류, 생활쓰레기 등을 정리한 뒤 폐기물 적재 차량에 직접 실어 나르며 대청소를 진행했다.

이번 활동을 통해 장기간 방치됐던 생활폐기물이 치워지면서 노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.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가 함께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.

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관계자는 "쓰레기로 가득했던 방이 깨끗하게 비워진 모습을 보니 어르신이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뭉클했다"며 "자체 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일을 보호관찰소의 지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"고 말했다.

박정욱 사회봉사 담당관은 "추석을 앞두고 어르신이 보다 건강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"며 "앞으로도 지역 봉사단체와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찾아 지원하겠다"고 말했다.